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¹⁾

이정림 선임연구원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하였으나, 빈곤가정의 영유아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영양과 건강, 보육·교육 기회 및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애 초기부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가정 유형에 따른 양육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양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영유아(손)자녀가 있는 빈곤가정 유형을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여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가지 유형의 빈곤가정 주양육자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및 요구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가. 빈곤가정 영유아 지원 필요성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생활, 주거환경, 보육 및 교육 기회, 영양과 건강,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²⁾.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정림, 김아름, 엄지원(2018)³⁾의 연구에서 보편적 복지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정림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만 4~5세 유아의 의사소통, 사회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3) 이정림·김아름·엄지원(2018).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같은 누리과정 영역에 대한 관찰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저소득 가정 유아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만 4세 유아는 양부모가 있는 가정의 만 4세 유아보다 누리과정 전체 점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의 만 5세 유아는 예술경험과 자연탐구 영역의 점수가 1점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 유아의 보육·교육에서의 격차 이외에도 빈곤가정 유아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 2008; 이정림·민정원·조혜주, 2014)⁴⁾.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낮은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다차원적 영역(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의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 내용이 줄어든 사회적 배제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해당 지원사업 등이 보강되어야 할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빈곤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정책 등에 대한 빈곤가정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정의 영유아(손)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곤가정 유형별로 촘촘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영유아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나. 조기투자의 중요성

Heckman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조기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Heckman(2008a: 5)⁶⁾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Heckman 곡선[그림 1]은 각 연령대에 동일한 규모의 투자, 즉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비효과율을 보여준다. 기술 형성에 있어 민감기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 동안의 투자대비효과율이 가장 높고 이후 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시기로 갈수록 투자대비효과율이 낮아진다(Heckman, 2008b: 312)⁷⁾.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투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equity)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취약계층이 이미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과 역량을 갖추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취약계층에 대한 투자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를 보면, 반대로 취약계층 영유아는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투자대비 효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Wöbmann, 2008: 2)⁸⁾.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투자는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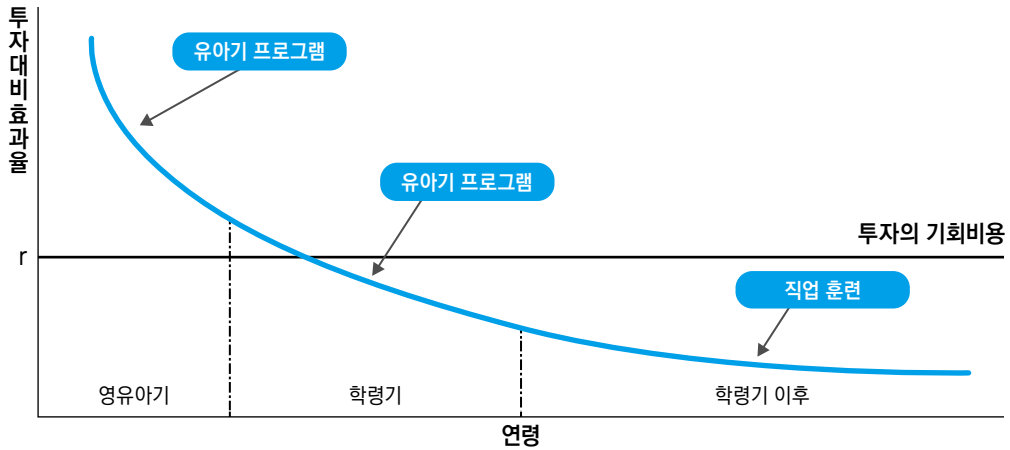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투자는 [그림 3]과 같이 역동적 상보성(dynamic complementarity) 또는 시너지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면, 인내, 신뢰와 같은 사회정서기술의 향상은

4) 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2008).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을 위한 미취학 빈곤 아동 건강 및 양육 실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104-115.

5)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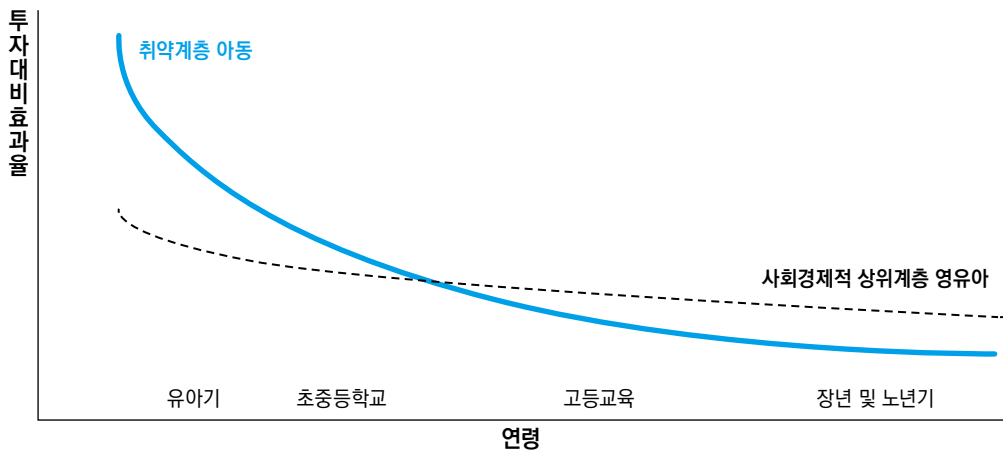
6) Heckman, J. J. (2008a).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CESifo DICE Report*, 6(2), 3-8.

7) Heckman, J. J. (2008b).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그림 1] 연령대별 투자대비효과율: Heckman 곡선

자료: Heckman, J. J. (2008b).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CESifo DICE Report*, 6(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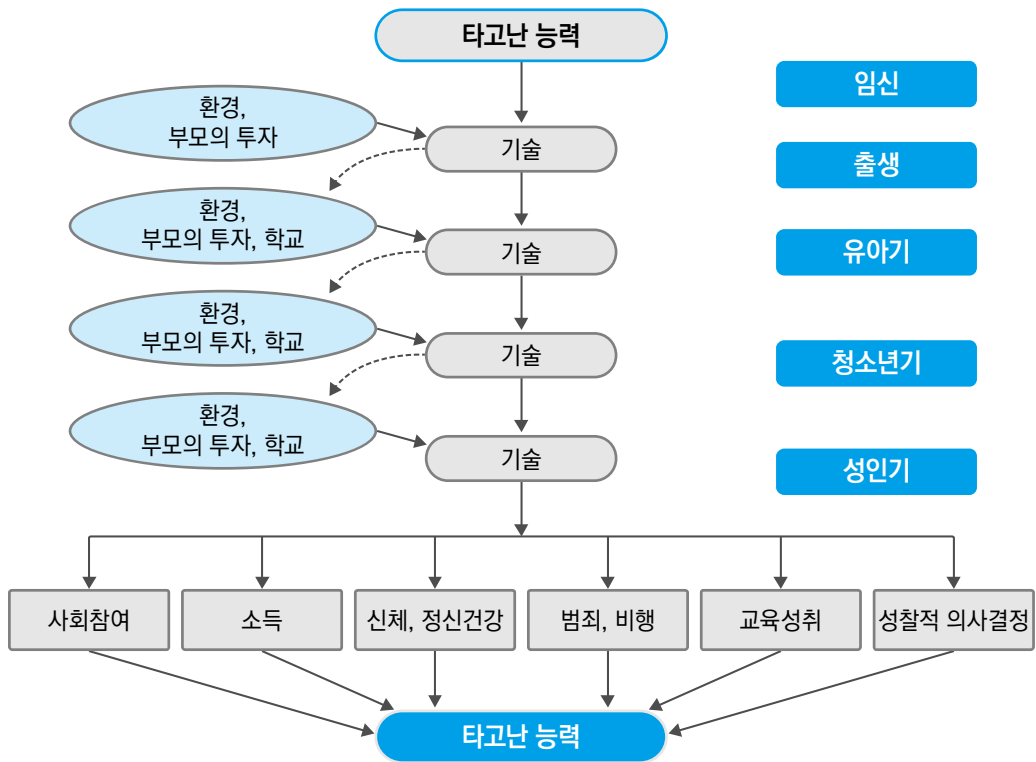
[그림 2]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영유아에 대한 투자대비효과율 비교

자료: Wöß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

인지기술의 원활한 습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결국 이후 시기에서 사회참여, 소득, 교육성취,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에서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오늘 이루어진 투자는 내일 필요한 기술의 기반이 되고, 취약계층 영유아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투자로부터 더

8) Wöß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



[그림 3]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투자의 역동적 상보성

자료: Heckman, J. J., & Corbin, C. O. (2016). Capabilities and skill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42-359.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Heckman & Corbin, 2016: 346)⁹⁾는 점에서 더 어린 시기의 조기투자는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빈곤가정 범주화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수급가구를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빈곤

가정을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반 빈곤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소득이 낮은 가정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한부모 빈곤가정의 경우 남자 가구주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여자 가구주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모두 포함하여 한부모 가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미혼모(부) 가정의 경우도 미혼부, 미혼모 저소득 가정 모두를 포함하여 범주화했다.

9) Heckman, J. J., & Corbin, C. O. (2016). Capabilities and skill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42-359.

〈표 1〉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350)	전체	100.0	(350)
자녀 연령			학력		
영아	67.4	(236)	고졸 이하	36.6	(128)
유아	32.6	(114)	대졸 이상	63.4	(222)
가정유형			지역 구분		
일반 빈곤가정	42.9	(150)	수도권	54.6	(191)
한부모 가정	27.4	(96)	비수도권	45.4	(159)
미혼모 가정	29.7	(104)			
양육자 연령			수급자 여부		
20대	17.4	(61)	해당	47.4	(166)
30대	60.9	(213)	비해당	52.6	(184)
40대 이상	21.7	(76)			

넷째, 조손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저소득이면서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를 조손가정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조모와 조부인가에 따른 구분 없이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인 저소득가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였다.

2. 빈곤가정의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분석

가. 응답자 특성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주양육자 3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반 저소득층 가정이 42.9%(150명), 한부모 가정이 27.4%(96명), 미혼모 가정이

29.7%(104명)이었다. 양육자의 연령은 30대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21.7%, 20대는 17.4%를 차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47.4%, 아닌 경우는 52.6%로 대략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6%, 대졸 이상이 63.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4.6%, 비수도권이 45.4%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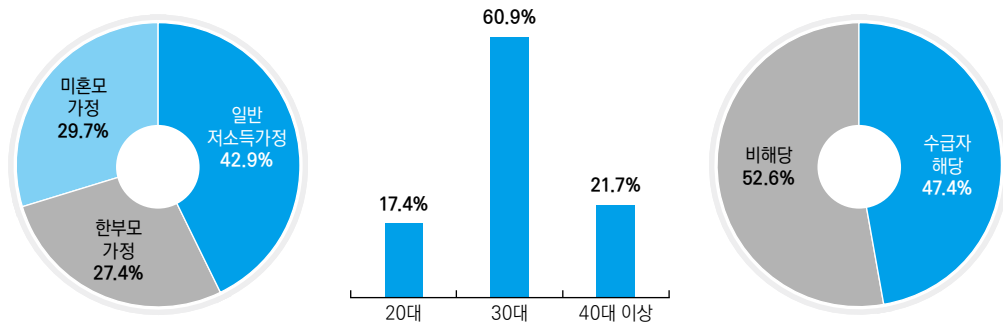
조손가정의 설문 응답자 24명으로 사례 수가 적어서 가정유형별 비교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가정위탁 형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17명(70.8%), 가정위탁이 아닌 경우는 7명(29.2%)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빈곤가정 주양육자 대상의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374명이었다.

나. 빈곤가정 특성별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자녀 양육

주중과 주말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보다 길었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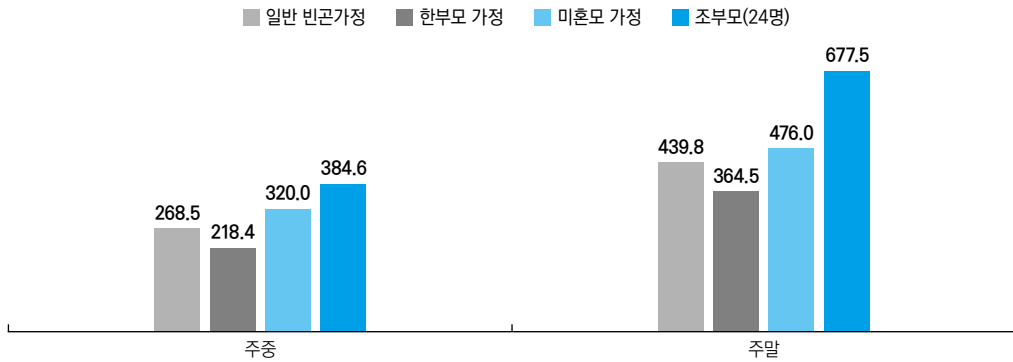
적 활동이 어려워 대부분의 시간을 손자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 가정의 주중 자녀 돌봄 시간은 320.0분으로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보다는 51.5분, 한부모 가정보다는 101.6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주말 자녀 돌봄 시간에서도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림 1] 가정유형별, 연령 및 수급자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표 2> 조손가정의 응답자 특성

응답자		계	(수)
전체		100.0	(24)
자녀 연령 구분	영아	50.0	(12)
	유아	50.0	(12)
양육자 연령	40대 이상	100.0	(24)
학력	고졸 이하	100.0	(24)
지역 구분	수도권	4.2	(1)
	비수도권	95.8	(23)
수급자 여부	해당	79.2	(19)
	비해당	20.8	(5)
가정위탁 여부	해당	70.8	(17)
	비해당	29.2	(7)
가구원 수	2인	20.8	(5)
	3인	29.2	(7)
	4인 이상	50.0	(12)



[그림 2] 조손가정의 주중 및 주말 손자녀 돌봄 시간(조손 외 가정 돌봄 시간과 비교)

<표 3>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수)
전체	4.1	3.1	3.0	3.1	2.1	(350)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4.0	2.9	2.8	2.8	1.9	(150)
한부모 가정	4.0	3.2	3.2	3.3	2.2	(96)
미혼모 가정	4.2	3.2	3.1	3.3	2.3	(104)
F	2.1	2.2	3.3*	6.1**	6.4**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 값임.
 2)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어 가정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p < .05$, ** $p < .01$.

이를 통하여 미혼모의 경우에는 영아 자녀 돌봄으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부모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므로 어린 영아보다 유아가 많고, 혼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하는 관계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자녀 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항

목이 5점 척도 기준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항목에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이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보다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양육을 혼자 주로 하게 되는 한부모와 미혼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자조 모임 등의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양육자 우울

지난 한 달간 양육자가 경험한 우울함의 정도는 6점 만점에 평균 2.4점이었으며 64.3%의 응답자가 0~2점을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이 일반 빈곤가정보다 우울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양육의 어려움

빈곤가정 유형별로 양육의 어려움은 비슷하였으나 미혼모 가정이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의 경우 외부 양육지원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 가정도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미혼모 가정과 마찬가지로

〈표 4〉 우울(PHQ-2)

단위: %(명), 점				
구분	0~2점	3~6점	계(수)	평균
전체	64.3	35.7	100.0 (350)	2.4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75.3	24.7	100.0 (150)	2.0
한부모 가정	56.3	43.8	100.0 (96)	2.7
미혼모 가정	55.8	44.2	100.0 (104)	2.8
$\chi^2(df)/F$	13.959(2)***			8.3***

주: 1) 본 척도는 ①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②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두 문항을 "전혀 없다" = 0점, "며칠 동안" = 1점, "일주일 이상" = 2점, "거의 매일" = 3점으로 평가하여 두 문항의 합을 제시함.
2)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어 가정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p < .001$.

〈표 5〉 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수)
전체	4.0	3.7	3.2	3.5	3.0	2.8	(350)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3.9	3.7	3.2	3.1	2.6	2.9	(150)
한부모 가정	3.9	3.7	3.1	3.6	3.2	2.7	(96)
미혼모 가정	4.2	3.9	3.3	3.9	3.5	2.8	(104)
F	2.9	1.1	0.5	9.4***	22.6***	0.5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값임.
2)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어 가정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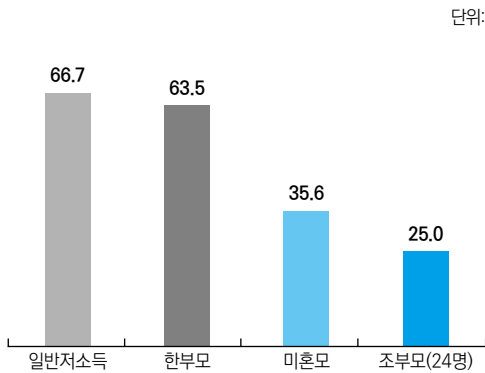
지로 외부 지원 인력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건강 및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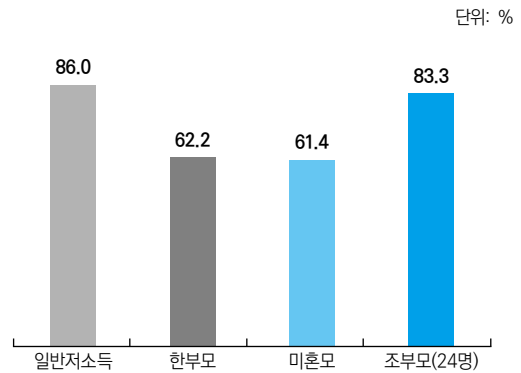
건강 및 영양에서 미혼모 가정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보다 모유 수유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 가정보다 영양상 균형 있는 음식 제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부터 모유 수유와 식생활 개선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지원,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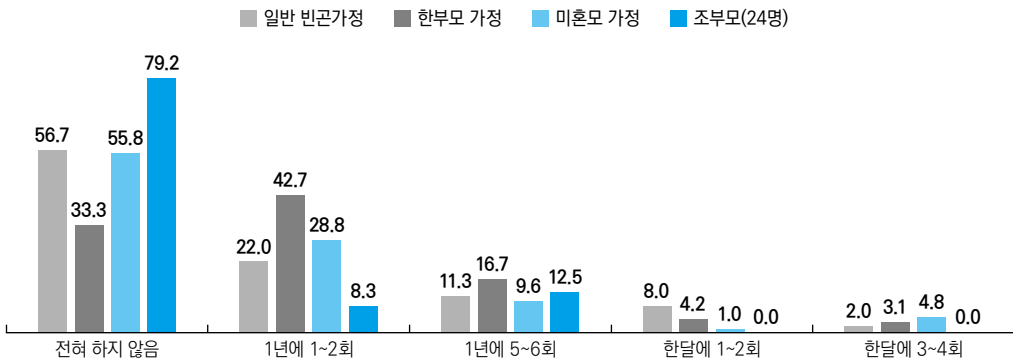
조손가정의 경우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79.2%로 조손가정 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보다 문화생활 경험(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이 적고, 문화생활 지출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서는 한 명의 부모가 양육, 부양책임을 감당함으로 양육 지원 인력, 생활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문화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모유수유 여부(예 응답비율)



[그림 4]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제공 여부(예 응답비율)



[그림 5]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

7) 영유아 자녀의 일과 활동

빈곤가정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주중/주말의 전반적인 3가지 일상적인 활동 시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주중과 주말 모두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각각 평균 79.4분, 102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영상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책 읽기와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은 영유아 자녀의 일과 활동 중 영상시청 시간이 책읽기,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보다 영상시청 시간이 많았으며 조손가정이 조손 외 가정에 비해 영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에서는 한 명의 부모가 양육, 부양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인하여 문화생활

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자녀 영상시청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육체적인 노쇠함으로 인한 자녀 영상시청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8) 양육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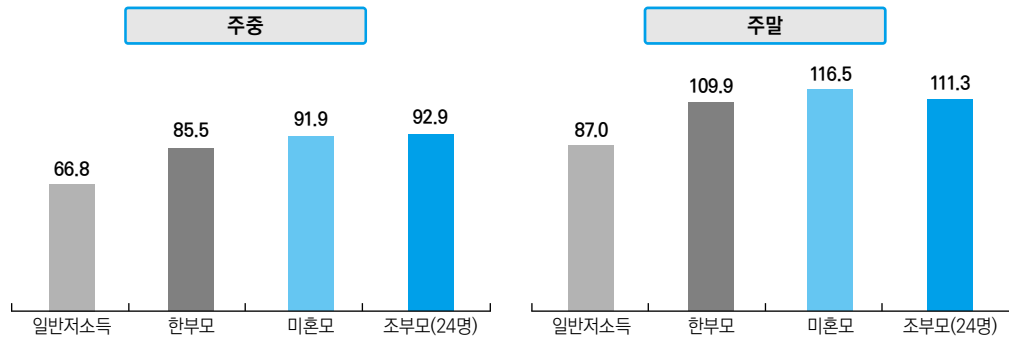
본 조사 참여 빈곤가정은 비용지원(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육료)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지원 수혜 경험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며, 영유아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였다.

〈표 6〉 주중과 주말의 일과활동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주중				주말				계(수)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20분 미만	20~40분	40분 이상	평균	
책 읽는 시간	29.1	48.3	22.6	32.9	30.0	38.6	31.4	36.3	100.0 (350)
TV, 컴퓨터, 휴대전화 영상 시청	20.6	42.0	37.4	79.4	18.6	33.4	48.0	102.0	100.0 (350)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 콘솔 게임	58.6	22.0	19.4	22.6	56.0	17.1	26.9	30.5	100.0 (350)



〈그림 6〉 조손가정 및 조손 외 가정 영유아의 영상시청 시간(분)

3.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

가. 빈곤가정 전반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1)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필요

빈곤가정 영유아의 다차원적인 영역(영양 상태, 발달 지원, 주거환경, 사회·문화적 생활 등)에서의 총체적 부실은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식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영유아 시기가 신체적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에 식비 제공 등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연령을 확대하고 활성화한다. 문화바우처 지원 등이 주로 6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더 어린 연령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 선물, 방문을 통한 영유아와의 책읽기, 어린이 대상 책읽기 프로그램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빈곤가정 영유아가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빈곤가정의 영유아 대상의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2) 조기드림스타트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

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격차는 점점 커져서 이로 인한 부정적 발달 궤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로 밝혀진 바이다(김수정·정의중, 2017; Heckman, 2008; Wößmann, 2008; Heckman & Corbin, 2016; Doyle, Harmon, Heckman, & Tremblay, 2009).

영아 및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드림스타트 활성화 뿐 아니라 조기 드림스타트 사업의 시작도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조기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 3세 혹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에서 영유아 비중이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더 어린 연령, 영아 및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사업이 필요한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조기드림스타트 사업의 시작도 필요하다.

3) 드림스타트에서의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영유아의 사례관리가 질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기회 제공 등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빈곤가정 영유아를 양육함에 따르는 어려움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차이용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라 자가용 소지에 대한 비용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지자체에 제안하는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4)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빈곤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와 같은 기존체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협력을 통하여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

나.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 유형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일반 빈곤가정의 경우,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배우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을 위한 보육·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권장이 필요하다.

둘째, 먼저 한부모와 미혼모(부) 빈곤가정의 자립과 자존감,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 등의 향상을 위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자조 모임은 강력한 지지체제로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과 확대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에는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을 지

원하기 위한 상담전화, 가족상담, 기존 상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미혼모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 영유아 양육 시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한부모, 미혼모와 같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경우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양육하려고 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미혼 한부모를 위한 산부인과 혹은 보건소와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영아 돌봄으로 인하여 주중과 주말에 자녀 돌봄에 보내는 시간이 다른 빈곤가정 유형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경제적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혼모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법률상담 등의 홍보 및 내실화, 영유아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완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손가정의 경우, 현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같이 관여하는 기관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조손가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하는 체계가 미약하다. 이에,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정의 수당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고소득의 정규직 형태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이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양육 수당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여가

및 문화생활에, 조손가정은 학원/특별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손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손자녀의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독서 지원 및 독서 및 특기활동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손가정 외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영유아 대상의 문화바우처 이용권 제공 및 가족이 문화생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